

ECONOMY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광주은행, 수출 유동성 지원...업체당 10만달러

광주신세계, 델보부터크 리뉴얼 본관 2층...바·VIP라운지 배치

광주신세계는 최근 본관 2층에 전 세계 최초의 레더 하우스 델보(Delvaux)의 부티크 공간을 꾸며 리뉴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부티크에는 고객 각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는 독창적인 '바(Bar)' 공간을 마련했다.

매장 안쪽에는 프라이빗한 VIP 라운지를 배치했다.

특히 브리앙(Brillant), 팜페트(Tempete) 등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델보의 상징적인 디자인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생토노레, 영국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 뉴욕 5번가 등 상징적인 장소들에 위치해 있는 전 세계 60개 델보 부티크들은 모두 각각의 고유한 콘셉트를 지니고 있다.

광주신세계 델보 부티크는 현대적이면서도 대담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매혹적인 공간으로,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럭셔리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집회팀장은 "델보가 본관으로 이동해 새단장하면서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매장에서 델보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을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매입외환 포괄보증' 도입 채권 조기 현금화 '숨통' 지방은행 1500억원 목표

광주은행이 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달러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및 수출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두번째) 등이 '지역 중소기업 및 수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보험공사, 광주은행을 포함한 4대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협력해 지역 수출

을 지원한다

기업의 유동성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제도 신규 도입 △지역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무역보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은행-기업 간 전자보증 시스템 연결 및 상호 협력 강화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거래 대상으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 거래에 대해 개별 기업당 최대 10만 달러 한도로, 최장 180일 이내의 매입외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수출기업을 특정하지

않는 1개의 은행별 포괄보증서를 담보로 다수의 수출자가 매입외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수출 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경영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려운 대내외 무역 여건 속에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경총, 생애설계·재도약 프로그램 '본격화'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등 지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생애설계 및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

재도약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통해 다시 한번 활기찬 직업 인생에 도전하는 취업 약속 프로그램으로,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이다.

현재 구직자만 52명이 등록한 상태이며 총 12시간으로 진행된다.

생애설계 프로그램의 경우 관산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일중심의 경력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자(4시간) 및 재직자(6시간) 모두 참여 가능하다. 21명이 등록해 올해 1285명 수료로 목표로 40회 이상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지난해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중장년층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사랑의 S-BOX 행사 (광주신세계는 20일 회사 대교육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S-BOX'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진 광주신세계 관리이사, 변정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가 기부한 금액으로 구매한 생필품과 간편식사 제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구성, 100개 가정에 매일 전달한다. 지난 2017년부터 누적 금액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광주신세계 영업익 523억...전년비 4.9%↓

송기봉 전 광주국세청장 신규 사외이사 선임

광주신세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5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은 지난해와 같은 주당 2200원으로 확정됐다.

또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광주신세계의 새로운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20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전남 주주총회를 열고 제30기 재무제표(이익잉여처분계산서 포함) 승인 의 건 등을 의결,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광주신세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1835억 7500만원, 영업이익은 523억2700만원, 당기순이익은 461억7600만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1795억8700만원)은 2.2% 늘었지만 영업이익(549억 100만원)은 4.9% 줄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482억5900만원)도 4.3% 감소했다. 주당 배당금은 2200원이며 시가배당률

은 7.59%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 선임에 대한 안건도 처리됐는데 송기봉 전 광주국세청장이 신규 선임됐다.

송 전 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광주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무법인 다우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상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부터 2년간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제64회 2025. 4. 18.(금)~4. 21.(일)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정성근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보해양조, 국립세종수목원과 매화원 개원

작년 해남 보해매실농원 매화나무 이식 매추순 등 전통 식물 원료 가치 조명도

보해양조가 국립세종수목원과 손잡고 매화원을 조성했다.

20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19일 수목원에서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과 최현준 보해양조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화원 개원식을 가졌다.

매화원은 보해양조가 국립세종수목원의 전통식물 보전 활용사업에 동참해 해남 보해매실농원의 매화나무를 기증하면서 조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보해매실농원의 전문 노하우를 전수받아 지난해 10월 성공적으로 매화나무를 이식했다.

보해양조는 1979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최상품

매실을 생산해 대표 제품인 매실주 '매추순'을 제조해왔다.

보해양조는 국립세종수목원과 적극 협력해 매화원의 유지·관리와 전통식물 자원 보전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현준 보해양조 센터장은 "해남 매실농원에서 최상품 매실을 생산해 대한민국 대표 매실주를 만들어왔다"며 "해남 매실농원의 매화나무를 이식해 매화원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매화는 우리 전통식물 중 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아온 귀한 자원"이라며 "오랜 기간 매실 관련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 보해양조가 매화나무를 직접 이식받아 매화 개



최현준 보해양조 센터장(오른쪽)과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이 19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회기에 맞춰 개원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화원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 조성됐으며 봄철 매화 개화기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